

종합·해설

# “MB私邸 아들 명의 매입 실명제 위반” “정치활동 지원, 시민단체가 할 일이나”

### 국회 대정부질문...여야 집중 공방 대통령 측근 비리 철저 수사 촉구

11일 진행된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내곡동 사저 매입 부분을 집중 공략한 반면, 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저 매입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아들 시험씨는 2007년 3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6억원의 담보 대출금 월 이자 200여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부모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화진 의원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내곡동 20-30번지의 공시지가가 5364만원인데 신고액은 2200만원이고, 20-36번지도 공시지가는 1억2513만원인데 신고금액은 8025만원”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장세환 의원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 지

금까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거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약점 공략에 집중했다.

이성현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겨냥,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창립 이후 11년간 928억여원을 모금했는데, 이중 일부가 참여연대와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불법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에 지원했다”며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게 시민단체가 할 일이나”고 따졌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은 “한 손으로는 재벌을 내려치고 다른 손으로는 ‘뺑’을 뜯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모금한 금액이 300억원 가량 되며 그 돈 대부분은 그와 함께한 동지들의 품위있는 삶을 위해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의원은 “박 후보가 대학(단

국대)을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연수원도 다녔다”면서 “허위로 선관위에 약력을 등록했는지, 아니면 단체에서 학력 관리를 사기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이성현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 존립의 시작인데, (야권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당의 존립 의미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도 “야당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라며 “그 결과 제1야당은 불임정당이 됐다”고 비꼬았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형식 국무총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질문 대부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안국동 박원순 캠프에서 열린 야권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함께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범야권 공조’ 선대위 출범

### 상임 선대위원장 손학규...‘멘토단’ 구성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11일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범야권 선거공조를 본격 가동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진보신당 김혜경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남윤인선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 정동영·정세균·전정배 최고위원, 박영선·추미애 의원,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혁신과통합 공동대표와 조광희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이 특보 역할을 맡았다.

박 후보는 특히 ‘멘토단’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선거운동에 반영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멘토단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와 영화 ‘도가니’ 원작자인 공지영 작가, 신경민 전 MBC 앵커, 영화배우 문소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소설가 이외

수, 이창동 영화감독, 임옥상 화가, 정혜신 의사가 포함됐다.

대변인에는 송호창 변호사와 우상호 전 의원이 기용됐다. 그러나 민노당 이정희 최고위원과 최규업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선대위 구성에 반발, 직책을 맡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을 권역과 분야별로 나눠 최고위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최고위원 권역담당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당 소속 87명 국회의원의 전원을 서울에 배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관료출신 장병완 한나라 저격수로

### 7억 상당 옥매트 등 후원물품 횡령 의혹 제기 맹활약

민주당 장병완 의원 (광주 남구)의 활약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후원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부각했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서울시장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민주당 측은 11일 분석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이 대



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 받은 7억원 상당의 옥매트를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에게 뿌리고 일부는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윤 의원이 협력 후원사에 연락해 축구공 300개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천호환의원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역구민 특혜 채용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두홍보에 체육회 직원 강제 동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대한장애인체육회 노조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땀으로 돌아가야 할 옥매트·축구공·홍상한부

리·김치 등 후원 물품들이 장애인 체육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나눠졌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장애인체육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윤석용 회장이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사태가 확산하자 민주당은 11일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 의원을 임명했다.

장 의원은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못할망정 천인공노하게 후원물품을 빼돌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곡동 사저 땅’ 대통령 명의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옮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저 땅을 직접 살 경우 보안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사도록 한 뒤 건축허가 시점에서 직접 매입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 야권 대권주자 유력 문재인 ‘선거 데뷔전’

### 서울시장·부산 동구청장 재보선 지원 나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10·26일 재보결 선거를 계기로 사실상 선거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이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해성 후보의 후원회장을 각각 맡았기 때문이다.

물론, 문 이사장은 지난해 10·28 양산 국회의원 재선거 때 민주당 송인배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다. 당시에는 문 이사장이 소극적인 지원 그쳤고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기 이전이 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는 유세 지원 등 선거 전면에 나서는 데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일단, 문 이사장은 이해성 후보로부터 선거유세, 행사참석 요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박원순 후보와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문 이사장이 선거전에 적극 뛰어든 것은 이번 재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박원순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듯 이번 재보선이 향후 야권 대



통합 논의의 진전을 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문 이사장은 현재 야권대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로서 대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문 이사장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평가 라운지

### 문상필 “풍향파출소 존치 시켜야”

문상필(민주·북구 3)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주택구구식 구간 경계조정과 광주지방경찰청의 대책 없는 치안행정으로 인해 풍향파출소가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풍향파출소 존치를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은 구간 경계조정 추진 당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인해 풍향동 지역의 치안문제가 거론되자 구간 경계조정과는 관계없이 풍향파출소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입장을 바꿔 풍향파출소를 폐쇄키로 하는 등 지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민약 대안 없이 풍향파출소를 폐쇄조치한다면 지역민을 치안 공백 속에 방치하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송경종 “수원지구 중학교 추가 설립을”

송경종(민주·광산3) 광주시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주민대표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지구 학교 추가 설립 관련 정책회의를 했다.

송 의원은 정책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회의에서 교육청은 초등학교 2개교 추가설립 계획은 밝혔지만, 중학교 추가설립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 향후 주민과 교육청 간 갈등이 우려된다”라며 “학생 수 등을 고려할 때 중학교 추가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민과 함께 중학교 추가 설립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구 중학교 학교급 학생 수는 평균 35.5명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자 완료되면 38.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주연, 비정규직 임용 조례 토론회 개최

전주연 (민노·비례) 광주시의원은 12일 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임용 조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택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부본부장의 주제 발표와 광주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한연님 광주학교 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 조성식 조선대학교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인 인기

##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감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가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재질(PP, 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번개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갤러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텃밭, 양동시장 외 200여곳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형광등용
디오라이트용
삼파장용
애코반사캡
DIV세트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di.com